

저자 (Authors)	박종수 Park Jongsu
출처 (Source)	건축 61(9) , 2017.8, 36-42(7 pages) Review of Architecture and Building Science 61(9) , 2017.8, 36-42(7 pages)
발행처 (Publisher)	대한건축학회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33014
APA Style	박종수 (2017). 고려시대 남한강 유역의 불교사원 유적. 건축, 61(9), 36-4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17 17:5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고려시대 남한강 유역의 불교사원 유적¹⁾

Goryeo Dynasty Buddhist Temple Sites associated with the Namhangang River Waterway Transportation



박종수 Park Jongsu
 원주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Wonju Cityhall
 wjmuseum@korea.kr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지정면 일대

유산 형성의 지리적 역사적 배경

원주는 한반도 중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원주의 동쪽은 차령산맥의 일부인 치악산맥이 남북으로 병풍처럼 도시를 감싸고 있고 남한강과 섬강이 흐르는 서남쪽은 비교적 평탄한 충적대지를 이루고 있어 농경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태백산에서 발원한 남한강은 평창, 정선, 영월, 단양, 충주를 거쳐 원주에 이르고 다시 여주, 이천, 서울을 지나 서해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중부지역을 동서로 관통하여 흐르고 있다. 때문에 육상교통로가 발달하기 이전 남한강의 수운은 한반도 중부지역의 주요 교통로로 이용되었고, 고대에는 국가 간 서로 세력을 펼치려는 각축장이 되기도 했다. 원주는 수운을 이용한 교통뿐만 아니라 한반도 중부의 동서와 남북을 이어주는 여러 경로의 육상 교통로가 발달하였다.

이러한 육상 교통로는 원주에서 남한강, 섬강과 만나 고려의 중심지 개성으로 연결된다. 한반도 동남부와 한양을 연결하는 평해로는 원주를 통과하는 대표적인 육상 교통로이다. 평해로는 원주 북서쪽 흥법사에서 섬강과 만난다. 따라서 크고 작은 육상로와 개성으로 연결되는 남한강의 수로가 교차하는 원주는 남한강 유역의 여러 도시 중 특히 교통의 요충지로 번성하였다.

남한강이 지나가는 원주시 부론면은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충청도, 경기도와 접하고 있어 예로부터 사람과 문화

가 들고나는 길목이다. 고려시대에 설치된 12조창 중 한 곳인 흥원창이 설치된 곳이 바로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이다. 황성에서 발원한 섬강은 흥호리에서 남한강과 만난다. 거둔사와 법천사 터는 흥원창 상류의 남한강변에 위치해 있고, 흥법사 터는 남한강과 연결된 섬강에 연하여 위치하고 있다. 대규모 사원을 건축하고 유지하려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고대 신라와 백제의 도읍을 중심으로 큰 사원이 건축된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그러나 왕도를 벗어난 남한강 중류지역의 원주에 대규모 사원이 건축되고 특별히, 고려시대에 들어서면서 크게 번창한 이유는 고려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했던 조창(흥원창)에서 찾을 수 있다.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하고 중앙 권력 강화를 위해서 조운과 역참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교통과 통신을 위해서 필수적인 작업이었다. 육상에는 육참을 설치하고 강변에는 수참을 설치하면서 중앙과 지방 사이의 명령과 통신 전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안과 강변의 60개 포구를 거점으로 활용하여 조세를 운용하는 조운제를 정비하였다. 한강 주변의 60포구를 거점으로 삼아서 조세를 운송하는 체제는 현종 연간(1010~1031)에 12조창 체제로 개편되었다. 국가에서 조창을 건설하여, 조창 주변 지역의 조세곡을 조창에 한꺼번에 수납했다가 국가 소속 조운선으로 개경까지 운송하는 조운제도가 처음으로 제도화된 것이다. 이후 10세기 후반에 서해도 안란창이 추가되어서 12조창은 13조창으로 확대 개편되었고 이 제도는 이후 350년간 운영되었다.

조운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주된 거점으로 만들어진 12개의 조창은 대부분은 연안 해안을 따라가는 해로수운

1) 원주에서 발원한 남한강 유역의 사원유적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기초조사 용역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이 연구는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수행하였다.

을 이용하였으나 한반도의 동쪽, 동남쪽에서 모이는 쌀은 개성 및 수도권으로 실어 올리기 위해 남한강의 내륙 수운을 이용하여 흥원창(원주)과 덕흥창(충주)에 집적된 뒤 개경으로 옮겨졌다. 조운 교통로의 발달로 중요 거점에 위치한 원주는 중세 고려왕실이 사상적으로는 불교를 이용하고, 중앙의 국가 운영을 위해 활용된 교역과 지역 거점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한반도 중부에 위치한 교통의 중심지 원주는 신라 북원경의 치소이자 신라 말에는 원주에서 일어난 북원의 호족 양길이 경기, 충청 일대까지 장악하면서 세력을 떨쳤다. 892년에 양길(梁吉)에 의탁한 궁예는 원주 치악산 석남사에 머물다 양길의 군대를 얻어 평창, 영월을 점령하고 동진 하여 894년 10월 명주(溟州)에 입성하였다. 이후 895년 8월 한산주(漢山州) 관내 10군현을 차지하였고, 896년에는 송악(松嶽개성)의 유력한 호족 왕건 가문을 받아들였다. 899년 7월에 북원을 중심으로 남한강 일대에 큰 세력을 이루었던 양길의 군대를 패배시켰다. 이를 계기로 900년 10월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하였고, 901년에는 고려(高麗)를 건국하였다. 이런 이유로 원주는 고려 건국의 배태지(胚胎地)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918년 궁예를 축출하고 왕위에 오른 왕건을 비롯한 고려 전기의 국왕들도 원주의 지정학적, 정치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고려 전기의 국왕과 원주의 관계는 세 곳의 사원에 주석했던 고승들과 그들이 입적하고 세워진 비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특히 왕건은 원주 흥법사의 진공대사 충담을 스승으로 받들었고, 충담 스님이 입적하자 직접 비문을 짓고 비를 세우기도 하였다.

불교국가를 표방한 고려의 정치체계에서 사원과 승려는 매우 중요한 위상을 점유하고 국가이자 왕실의 지원하에 막강한 권한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고려 왕실은 새로운 나라를 개창하면서 국가운영의 목표와 방법을 설정할 때 불교 고승 및 사원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였고 이들을 통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하였다. 이는 왕사, 국사의 탐비에 새겨진 비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런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흥원창 주변의 흥법사, 거둔사, 법천사는 단순한 불교사원이 아니라 하나의 경제단위로서 숙박업, 상업, 수공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경영에 나섰다.

이들의 독보적인 위치는 절의 크기, 원의 운영, 왕실의 국사 임명, 이에 따른 왕실의 경제적인 지원으로 당시 최고의 공예 수준으로 제작된 탑과 탐비 등이 보여준다.

남한강 유역의 수로와 육로를 중심으로 국가나 민간의 경제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데 원주의 세 개 사지는 바로 이와 같은 흔적을 대변하는 유산이다. 세 개의 사원 유적과 인근의 조창 유적은 근대교통수단이 발전하기 전인 중세부터 근세까지 활발하게 이용되었던 내륙 수운로로서 특히 수도와의 입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 남한강 수운 교통로를 중심으로 불교 국가였던 고려시대에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서서 경제체계의 큰 축을 담당했던 불교사원의 역할과 위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유산이다.

이는 한반도의 역사에서 고대에서 중세시대로 넘어오는 시기의 정치, 경제, 운송 체계의 변화를 다각도로 보여주는 유산이고 화폐경제가 도입되기 전 농업국가인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약 600~700년 가까이 운영되었던 조운로 시스템이 초기에 권력의 보호를 받은 불교사원이라는 국가적인 종교시설과 더불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유산이다. 이 사찰들이 위치한 지역은 남한강수로의 요지로 남한강수로의 물자유통을 장악한 유력 세력도 존재하였던 곳이다. 이 지역의 사찰들은 창건과 운영에 있어서 주변 유력 세력들과 관련이 깊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산의 특징

신라시대에는 국가의 중심이나 상징적인 위치에 사찰이 배치되다가 고려조에 들어서면 사원은 교통의 결절점이자 길목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그만큼 사원들이 지방 거점지로 사용되면서 상업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고려가 체제를 정비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은 10세기 후반이다. 원주에 있는 세 곳의 사원도 이 시기에 전성기를 맞이한다. 흥법사지 진공대사탑 및 석관(10세기 초반, 보물), 거둔사지 원공국사탑비(11세기 초반, 보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11세기 후반, 국

보)이 전성기를 대변하고 있다(그림 1~3 참조).

각각의 사원은 약 60년 정도의 시기 차이를 두면서 서로 번성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흥법사는 10세기 초, 고려 건국과 더불어 최고의 위치를 점하였다. 뒤를 이어 거둔사는 11세기 초 현종의 재위시기에 번성하였고, 법천사는 11세기 말 문종 대에 최고의 사세를 자랑하였다. 세 곳의 사원은 고려의 건국과 더불어 고려 전반기에 걸쳐 점차 왕권이 안정되어가는 과정에서 조운로의 체계화와 더불어 남한강 유역을 따라 차례로 번성하였고 조선 전반기에 모두 몰락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각각의 사원은 고려시대 조운로의 운영과 더불어 융성했던 불교사원의 모습을 오롯이 잘 간직하고 있는 유적이다.

원주 지역의 불교사원은 고려가 건국하던 시기에 기존 통일신라의 중앙귀족과 교종의 권력구도를 깨고 새로운 호족과 불교의 선종교단을 규합하면서 이들을 중앙집권 체계화 시키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이다. 그리고 고려 초기 왕들이 특히 원주 지역의 이 세 개 사찰에 반복적으로 왕사나 국사를 임명하는 것과, 이를 계기로 사찰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것은 모두 이 세 사찰이 남한강 유역의 조운로 운영과 그 결절점에 있

는 흥원창의 운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한강 유역 일대는 남한강이 원주 부론면에서 삼강을 만나 여주를 거쳐 양평에까지 이르는 지역을 포괄한다. 이 일대는 수로와 연결된 육로가 주변지역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남한강 수로가 직접적으로 지나지는 경기도, 충청북도, 강원도 영서지방과 그 너머의 충청북도 남부, 경상북도, 강원도 영동지역까지 물자 운송을 하던 간선 교통로로 활용되었다. 남한강 수로는 고려시대 이후 조운제도가 성립되면서부터 국가의 기간 교통로가 되었으며 이 교통로의 중심 요지를 차지하는 곳이 바로 원주 흥호리 일대로 이 곳에 12조창 중의 하나였던 흥원창이 위치하였다.

흥법사지

원주 흥법사의 창건시기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진공대사탑비’의 존재는 흥법사의 연혁에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한다. 진공대사탑비는 고려 태조 때의 왕사 충담의 탑비로 비문에 따르면 940년 충담이 입적하자 탑과 비를 세워 그를 기렸다고 한다. 따라서 흥법사는 940년 충담의 입적 이전부터 법당이 이어지고 있었던 사원임을 알 수



그림 1. 거둔사지 원공국사탑 및 탑비



그림 2.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및 탑비



그림 3. 흥법사지 진공대사탑 및 탑비

있다. 충담이 입적하자 원주 영봉산 홍법사에 탑을 세우고 고려태조가 친히 비문을 지었다는 기록은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의 사서에서도 찾을 수 있다. 홍법사는 고려 태조 이전에 창건되어 고려 전기에는 높은 사격을 지닌 사원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 홍법사의 연혁과 관련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단지 고려후기 『역옹패설』을 필두로 여러 문집에서 언급되고 있다. 고려후기까지 홍법사가 법등을 이어오고 있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은 목은이색의 『목은시고』 중에서 “興法堂頭”이란 표현은 홍법사의 주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1390년대에도 홍법사가 존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전기의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홍법사 경내의 탑비를 언급하며, 특히 『신증동국여지승람』 편찬에 참여했던 서거정의 시에는 홍법사 대 앞에서 비문을 탁본하였다는 구절이 있어 15세기 중엽까지는 사세가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1584년 간행된 『관동행록』은 이우가 1510~1511년 강원도 관찰사로 나가 있는 동안 지은 100수의 시를 모아놓은 것인데 그 중 「원주홍법사비」라는 시에는 당시 홍법사의 모습을 폐허로 묘사하고 있다. 홍법사가 17세기 전반에 이미 폐사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은 이민구의 「관동록」에서 비를 관청으로 옮긴 이후 비가 파손되어 일부가 결실되었고 화재를 입어 글씨는 겨우 알아볼 수 있는 정도가 되었으며 을해년(1653년 추정) 가을 방문하였을 때는 풀이 무성한 채 터만 남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볼 때 1653년 이전에 폐사된채 비만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중반의 지리서인 『여지도서』에서도 “今廢”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1799년 편찬된 『범우고』에서 동일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홍법사의 창건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진공대사 충담이 입적한 940년 이전에 이미 사격을 갖추고 있었던 사원으로 추정되며 고려 전 시대에 걸쳐 법등이 이어지고 조선 전기까지 존속하였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6세기 전반에 쇠락하였거나 폐사되어 17세기 이후에는 자취를 감춘 것으로 판단된다.

홍법사지에서는 그동안 석물학술조사만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행해지지 않았다. 2015년 처음으로 발굴조사가 일부구역에서 실시되어 일탑식 가람배치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되었다. 시굴조사 구역에서는 9~10세기의 통일신라 기와와 12~13세기의 고려기와가 출토되어 관련된 유구가 중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지역 북쪽의 지하탐사 결과도 사원과 관련된 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그림 4 참조).

거둔사지

거둔사의 창건 경위나 중건에 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회양산 봉암사의 개산조인 지증도헌(824-882)의 비문에서 864년 현계산 안락사로 옮겨 교화 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아 현계산에 위치한 거둔사가 안락사의 후신으로 추정된다. 안락사가 거둔사로 사명이 바뀌는 시기는 분명치 않으나 후삼국기의 혼란 속에서 신라왕실의 지원을 받은 안락사는 초적세력의 공격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명맥을 유지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거둔사에 대한 기록은 지종의 하산으로 다시 나타나고 사상적 배경이 법안종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개경에서만 활약하던 지종이 89세인 1018년(현종 9)에 개경 광명사에서 하산하고 그 해 거둔사에서 입적한 것이 거둔사



그림 4. 홍법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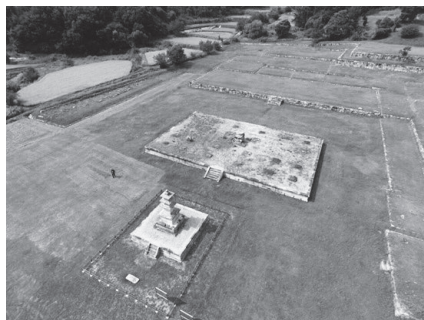


그림 5. 거둔사지



그림 6. 법천사지

의 위상을 보여주는데 광명사와 거둔사는 본말관계로 연결된 관계이고 광명사는 태조 왕건이 자신이 살던 집을 하사하여 세운 사원으로 지종도 대선사가 되어 주지를 역임한 후 왕사로서 하산할 때까지 주석하였던 곳이다.

원공국사 지종 스님의 입적 이후 고려 강종 즉위년인 1212년에 선종승려 정각국사 지겸이 왕사로 임명되어 거둔사의 주지를 역임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거둔사는 현계산에 있다. 고려 최충이 찬술한 중 승묘의 비가 있다’라고 언급되어 있으나 18세기 영조대에 만들어진 여지도서에는 거둔사가 이미 폐사가 되었다고 기록된 점으로 미루어 적어도 18세기 이전에 법통이 끊어졌음을 알 수 있다. 거둔사지는 1986년 석물 실측 및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1989~1992년까지 총 4차례에 걸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발굴을 통해 9세기경에 창건되었고 나말여초에 중건된 이래 11세기경 법안종 사원으로 최고의 사세를 누리다가 18세기 이전에 폐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둔사는 중심사역의 건물지와 별원을 구성하는 건물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창건 당시에 규모가 작았고 북쪽과 동쪽으로 고려 초기와 중창 시기에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그림 5 참조).

법천사지

법천사는 725년에 창건되었다고 하나 사실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다만 법상종 유식학이 성덕왕대 승려 도증(道證)의 귀국으로 본격적으로 전수되기 시작하고, 경덕왕 때 도증의 제자인 태현에 의하여 집대성되어 종파로 성립된 점으로 미루어, 그 대표사원이었던 법천사도 8세기 말경에 창건된 것으로 추측할 따름이다. 한편 법천사에 대한 현재까지 확인된 최초의 기록은 928년 유가종의 석초(釋超)가 법천사에서 현권율사(賢眷律師)에게 계(戒)를 받았다는 것으로, 이 시기에 수계를 할 수 있는 계단(戒壇)이 있었다는 것은 법천사가 928년 이전에 이미 어느 정도 사격(寺格)을 확립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032년에는 법상종의 고승이었던 정현(鼎賢)이 덕종(德宗)의 교지를 받고 주지로 부임하는 것으로 보아 이 당시에 법천사는 법상종계의 중요사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법천사의 승중(僧衆)이 동요하자 덕겸(德謙)을 보내 진정시키고 이에 승통(僧統)을 내렸다는 것으로 보

아 법천사가 대단한 사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지광국사현묘탑비에 의하면 해린은 991년경 법천사에서 머물던 관웅(寬雄)대사에게 수학하고 현화사 등의 주지를 거쳐 국사가 된 후 1067년에 국사의 신분으로 법천사로 돌아오는데, 이를 계기로 법천사는 법상종의 중심사원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 더욱 번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1405년(태종 6) 조정에서 사사(寺社)를 혁파하고 없앨 당시 법천사는 화를 면한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1407년(태종 7)에 확인된다. 또한 유방선(柳方善)이 한명회·서거정·권람 등을 가르치고, 이들이 탑에 시를 써놓았다고 하는 기록에 비추어, 적어도 조선초기까지는 법천사의 법맥이 이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법천사는 지관스님이 머물던 1589년까지는 존속하다가 1592년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소실되었고 허균이 답사하는 1609년에는 폐사된 상태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에 쓰여진 각종 지리지에도 법천사가 중창(重創)되었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폐사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0차례의 발굴조사를 거치면서 지광국사현묘탑비가 위치한 가장 상층구역, 금당과 탑지가 포함된 사원영역과 정청, 양익사, 숙박시설이 결합된 객관 영역이 조사되었다. 독립된 원과 여러 종류의 부속건물들이 중심영역의 주변에 넓은 범위로 분포하고 있으며 창건기 유구, 중창 유구, 재건중창 유구 등이 확인되었다(그림 6 참조).

흥원창지

원주에서는 남한강까지 길게 흐르는 섬강을 따라 동쪽으로는 충주, 제천, 서쪽으로는 여주, 서울, 그리고 서해 바다까지 갈 수 있고 강을 거슬러서 황성도 쉽게 갈 수 있어 원주는 교통의 요지였다. 흥원창은 원주의 남쪽 30리 지점인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창말 인근에 있었다고 추정된다. 섬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지점의 북쪽에 나지막한 산을 등지고 있으며 창터 양쪽으로 산자락이 흘러내려 자연적인 울타리 역할을 해준다. 흥호리 일대는 영동지방으로 가는 육로와 충북내륙으로 통하는 육로, 그리고 경기 남북지역으로 통하는 수로가 모두 연결되는 교통의 결

절지였다. 이 곳은 또한 남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가 선단을 이루어 상류지역으로 항행하는 곳으로 소강하는 물자와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집결하는 곳이었다.

원주 지역은 강원도이지만 남한강 덕분에 충적평야가 비교적 많아 밭보다 논이 많아 물자가 풍족했으며 소금을 비롯해 서해를 통해 유입되는 물산은 섬강을 따라 동해안으로 팔려나가기도 했다. 다만 아직 홍원창은 한 번도 제대로 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시굴조사가 행해진 적이 없어 물리적인 유적의 흔적이 확인된 적은 없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합되는 근거 기준: (iii), (iv)¹⁾

(iii) 살아있거나 또는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 혹은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

제가 성립되어 운영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남한강 유역의 조운체계와 인근의 불교사원들이다. 각 사원은 고려 왕실의 지원을 받으면서 근거지역의 조운선 운영과 세곡 운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해 물류와 상업의 요충지로 기능하며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이는 한반도의 역사에서 고대에서 중세시대로 넘어오는 시기의 정치, 경제, 운송 체계의 변화를 다각도로 보여주는 유산이고 화폐경제가 도입되기 전 농업국가인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약 600~700년 가까이 운영되었던 조운로 시스템이 초기에 권력의 보호를 받은 불교사원이라는 점에서 국가적인 종교시설과 더불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유산이다.

(iv) 인류 역사의 주요 단계(들)를 보여주는 유형의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의 뛰어난 사례여야 한다.

세 개의 사원 유적과 조창 유적은 근대교통수단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전인 중세부터 근세까지 활발하게 이용되었던 내륙수운로, 특히 수도와의 입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 남한강 수운 교통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불교 사찰이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서서 경제체계의 큰 축을 담당했던 역할과 위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면서 고려시대 정치경제의 사회적인 면모를 모두 보여주는 유산이다. 원주라는 내륙수운 및 육상교통이 만나는 요충지에 자리잡은 각 사원의 위치, 국가 내의 주요 교통망과 유통로의 거점에 설치되었던 객관을 포함한 사원의 규모, 생산 및 유통관매를 적극적으로 전개한 고려시대 불교 사원의 운영방식과 그 흔적, 고려 초기 왕실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왕사와 국사를 배출한 흔적으로 남은 화려한 석조물들이 그 위상과 역할을 보여준다.

고려는 한국 역사에서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오는 중요한 역사적 발전 단계에 접어든 시기인데 단순히 왕조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사회와 정치 체계 전반이 모두 바뀌었다. 중앙집권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전에는 각 지방에서 각각 이루어지던 일들이 중앙으로 집결하게 되었고 국가는 본격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세금을 걷어서 경제를 지탱하게 되었다. 그런 포괄적인 정치·경제적 체

현재 한국에 남아있는 많은 사찰들은 그 역사적 형성 배경을 삼국시대에 두고 있으며 불교국가를 표방했던 고려시대에 들어서면서 불교는 정신적 신앙이나 종교의 틀을 넘어서서 사회경제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거대한 사회세력으로 부상하였다. 이런 불교의 발전에 맞추어 불교 사원은 신앙의 장소만을 갖지 않고 경제적인 생산활동, 교통 요지에서의 숙박시설 제공, 지방 교통의 거점에서 유력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갔다. 원주의 세 개 사지는 교통 요지에 위치하여 주요한 신앙시설과 더불어 원시설, 공방시설을 갖추고 번성했던 고려시대 불교사원의 대표적이고도 탁월한 유형을 보여준다.

고려 이후 불교를 탄압했던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불교는 산중사찰을 통해서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고 이들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불교 발전의 단계를 보여주는 사찰들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조선시대 등의 시간적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불교가 사회경제적 역할을 가장 막강하게 행사했던 고려시대에 번성한 사찰의 유형을 보여주는 예는 매우 드물다. 원주의 사지는 한국의 불교 발달 단계 중 가장 번성했던 시기의 사찰 건축과 그 유형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이다.

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www.unesco.or.kr) 참조

진정성 및 또는 완전성의 기술

진정성

홍법사, 거둔사, 법천사 터는 모두 발굴조사 또는 시굴 조사를 통해서 절터가 확인된 곳으로 현재는 석축, 건물 터, 배수로, 석담, 탑비 등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들은 출토된 유물과 출토 지층으로 미루어보아 소재와 재료, 위치와 환경, 사원으로서의 기초적인 형태와 디자인의 진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 사원 모두 본래의 입지에 그대로 위치하고 있으며 남한강과의 지리적 관계는 진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사원으로서의 기초적인 구성을 유지하고 있고 조선시대에 특별히 중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시대 번성했던 특징을 잘 간직하여 형태의 진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발굴조사나 시굴조사의 실시로 세 사원에서 출토된 여러 유물들의 시대적인 특징과 소재, 재료, 그리고 기법에서 그 진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홍원창 터는 아직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표면 아래에 유산의 형태와 디자인, 소재 및 재료 등을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과 환경, 홍원창 주변의 홍호리 창말, 법천사의 법천리 등과 같이 인근 지역의 지명에서 보이는 언어와 여타 형태의 구전 전통 등에서 진정성을 갖추고 있다. 다만 홍원창 주변 남한강의 흐름은 물길의 오랜 시간동안 자연적으로 변화한 것과 더불어 근현대 시기에 들어서서 시행한 물길 조성사업 때문에 약간 변화한 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지형과 옛 물길을 분석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완전성

고려시대 남한강 유역의 조운체계와 관련 불교사원이라는 유산은 전체적으로 하천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 물길이 집적되는 조창지와 조창과 조운선의 운영에 깊게 관여하면서 번성했던 사원의 터, 그리고 이 곳에서 출발한 조운선이 향해간 수도 방향의 하천 유역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범위가 설정되어있다. 이는 전체적인 조운체계를 이해할 수 있으면서 관련된 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온전함의 관점에서 유산의

완전성을 갖추고 있다.

세 개 사원과 홍원창터로 추정되는 곳들은 조선시대를 지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중창이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곳이다. 거둔사지와 법천사지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사적으로 그 영역이 보존 관리되고 있으며 거둔사 내의 원공국사탑과 탑비, 삼층석탑이 모두 보물로, 법천사 내의 지광국사탑비 역시 보물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되고 있다. 홍법사지 또한 삼층석탑과 진공대사탑비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사지 자체는 강원도 문화재자료로 보존관리되고 있다.

현재 확인된 사역보다 더 넓은 범위의 사원 흔적이 확인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비로 거둔사는 사적 지정영역을 확대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홍법사 역시 전체적인 사원 규모 확인과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해서 사적 지정을 추진하는 중이다. 법천사는 현재까지 가장 중점적으로 발굴이 이루어진 사원으로 고려시대, 조선 초기의 사원의 규모와 형태가 온전하게 드러나 종교시설로서의 사찰과, 경제시설로서의 원과 공방이 모두 공존했던 이 시기 사원의 모습을 완전하게 보여주고 있다.☐

필자 소개

박중수 원주시 문화재 담당은 원주역사박물관장을 역임하였으며, 1997년 원주시 사 편찬을 기획 주관하였고, 1995년 8도 감영중 최초로 강원감영 정비복원 계획을 입안하였으며, 거둔사지와 법천사지 등 폐사지 정비와 영원산성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등 1995년부터 지금까지 원주의 역사와 문화재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